

강진군 다산청렴교육, 생활인구 늘리고 지역경제 살려

상반기 1,867명, 교육비 4.8억 수입 경제효과 9억 이상 창출

강진군의 대표 청렴교육 프로그램인 다산청렴교육이 단순한 공직자 연수를 넘어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이 운영한 청렴교육은 총 36회, 1,867명이 참여해 4억8,523만원의 교육비 수입을 기록했다.

이 교육비는 숙박, 식사, 체험, 차량 인차, 문화해설사 활동 등 지역 내 업체와 인력에게 지불됐다. 교육생들의 축제·시장 참여, 자유시간 소비, 추가 체류 등 부가 소비까지 더해져 약 9억원 이상의 경제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을 통해 사람을 불러 모으고, 체류를 유도해 소비를 촉진하는 '생활인구 기반 지역경제 모델'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청렴 교육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뒀다. 연수원은 교육생의 2인 1실 동반 숙박을 유도

하고, 이에 참여한 모든 교육생에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3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지역 소비를 유도하며 소상공인, 전통시장, 식당 등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불어넣고 있다.

교육생 대다수가 전국의 행정 및 교육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들의 체류와 경험은 강진의 반값여행, 푸소체험, 귀촌 정책 등 다양한 군 정책을 전국에 알리는 파급 효과도 크다.

나아가 교육을 마친 공직자들이 강진의 자연과 정취, 다양한 체험에 매료돼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재방문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입소문을 통해 강진을 찾는 신규 방문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단발성 교육을 넘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체류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2011년 시작된 다산청렴교육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청렴 정신을 바탕으로 한 2박 3일 체험형 교육으로, '다산공직관 청렴교육'과 '공무원 푸소 청렴교육' 두 개의 정규과정 외에도 다산체험 청렴교육, 다산가족캠프까지 다양하게 운영된다.

상반기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 인천광역시청, 경남교육지원청 등에서 참여했으며, 하반기에도 서울시인재개발원, 전북교육청, 대구교육연수원 등이 참여를 확정해 전국 최고의 공직자 연수 프로그램

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될 하반기 정규과정은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6회(360명), '공무원 푸소 청렴교육' 7회(490명) 등 총 13회로 구성되며, 모든 과정은 2박 3일 체험형으로 운영된다. 연수원 숙박과 푸소 농가체험을 병행해 공직자의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강진의 정서를 체험하게 하는 구조로 구성됐다. 교육비는 1인당 36만원이며,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공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장흥 탐진강 '빛의 강'으로 새단장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원 활용, 탐진변 2km 야간경관 조성

장흥군은 탐진강 일원의 '문흥 빛의 거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지역 야간경관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총사업비 약 40억 원이 투입되었다.

사업은 지역민과 관광객의 산책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탐진강 주변 약 2km 구간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야간 경관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문흥 빛의 거리 조성사업에는 다채로운 색감의 경관조명과 미디어 아트 요소가 집속되어 탐진강의 자연 풍경

과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야경이 연출됐다.

산책로를 따라 설치된 감성 조명과 물 위에 반사되는 빛은, 사진 명소가 야간 힐링 공간으로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탐진강 '빛의 거리'는 장흥의 밤을 새롭게 밝혀줄 핵심 공간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야간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함께 더욱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완도군은 초복을 앞두고 특산물 소품몰인 '완도청정마켓'에서 '복날엔 전복, 전복 데이 완도 보양식 특가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날엔 전복, 전복 데이 완도 보양식 특가전'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3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2만 원 이상 구매 시 적용 가능하며 타 쿠폰과 중복 사용 가능하다. 또한 완도청정마켓 카카오톡 플러스

복날엔 전복! 완도청정마켓서 전복 30% 할인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완도 보양식 특가전 진행

친구 추가를 하면 2천 원 할인 쿠폰을, 정성스러운 후기를 작성하면 선정을 통해 1만 원 쿠폰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가전을 계기로 전복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실속 있는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정바다에서 자란 완도 전복은 각종 비타민과 철분, 칼슘, 칼륨, 단백질 등이 풍부해 원기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힌다.

완도/장선우 기자



보성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최대 55만 원 소비쿠폰으로 무더위 속 민생 지원

보성군은 오는 7월 21일부터 정부의 전국민 지원 정책에 맞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민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지원에서는 전 군민에게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한부모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보성군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군민 모두에게 5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이로써 1차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된다.

2차 지원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군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최종적으로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본인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군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 준비 완료 후 다시 방문해 소비쿠폰을 전달할 계획이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6월 18일 기준 보성군 주민등록자로 제한된다.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ARS)과 ▲오프라인(읍면 행정복지센터, 카드사 영업점) 등 다 가능하나, 오프라인 신청 시 지류형 상품권으로 수령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카드 포인트 또는 카드형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보성군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약국, 병원, 학원, 미용실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카드형 쿠폰은 기한 경과 시 자동 소멸한다. 지류형 상품권은 사용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일한 기한 내 사용이 권장된다.

보성/김운기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 대응 상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이른 장마 종료로 폭염 특보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의 최일선 부서인 읍면동장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폭염 대비 주요 협조사항으로는 ▲취약계층 등 인명피해 보호 ▲폭염시설 유지·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대

순천시, 여름철 폭염 대응 위한 읍면동장 대책회의

시민 홍보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안부 수시 확인, 농업 및 현장 야외근로자 예방 활동 강화, 읍면동 사업 시행 시 수분(물) 섭취, 충분한 휴식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관내 무더위쉼터 주말·야간 연장 운영 여부 확인 및 냉방기기, 횡단보도 그늘막 등 시설물에 대해 전

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파출소, 119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장 예찰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관용차량 가두방송, 이동차량 방송 수시 송출, 유튜브 숏츠 등 폭염 관련 홍보물을 읍면동 유통회의 및 자생단체 메시지를 활용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반복해야 함을 강조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폭염 등 자연재난

은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읍면동에서는 취약계층 보호,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취약지역 순찰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731개소 및 횡단보도 그늘막 134개소, 살수차 운영, 생수 보급 등 다양한 폭염저감 시설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폭염 대비 행동 요령 재난안전문자, 마을방송,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담양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5일과 12일 담빛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학령기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자기 역량강화 통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전에는 금융교육을 통해 용돈 관리, 저축과 소비의 차이 등 실생활에 유용한 경제 개념을 익혔다.

담양군, 아동 자기 역량강화 통합교육 운영

금융교육·디지털 중독예방·성교육 등 실생활 중심 프로그램 구성

오후 교육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자기 조절력 향상을 주제로 한 디지털 중독예방 교육과 함께, 신체 이해 및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교육이 이

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통합교육은 아동의 다양한 발달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062-525-9775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